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5월 3일 (첫째 주일/어린이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8장 1-5절

설교제목 : “기억하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의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1절에서 가장 서두에 놓인 단어는 ‘하나님이 기억하사’입니다. 노아 홍수의 재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에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란 어느 날 갑작스런 기억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뚜렷이 새겨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세상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앙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삶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만이 희망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롬8:38-39)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결과가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1-5절) 본문에서 ‘바람’으로 번역된 ‘루아흐’는 일차적으로 공기의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문맥상, 바람과 성령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결국 바람이란, 모든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홍수의 원인이었던 깊은 샘과 열린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게 비가 멈추어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물러가고’로 번역된 동사 ‘슈브’는 ‘돌아가다’란 의미입니다. ‘돌아가다’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로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작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이 수반되는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치유와 회복,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면 자기들을 위해 움직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시25:6-7)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창1:27)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자카르’입니다. 본문에서 ‘남자’란 여자와 구별되는 성별의미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자카르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카르’는 ‘흔적을 남기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문화에서 이 단어는 ‘왕의 비서관’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비서관은 왕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사안들을 왕에게 환기시켜 주는 중대한 특권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점차 ‘자카르’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카르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타락한 사람 즉 죄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찬된 인생은 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 혹은 실패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를 뱀이 그 기억을 흐려놓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사사기의 비

극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삿2:7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기억했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한 의인의 가정을 찾았는데 그 한 가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창18:32)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쳤던 단 한 가정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은 한마디로 기억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역사교육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절기행사를 통해 당시를 재현하며 과거 조상들의 고난과 실패를 체험해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홀로 코스트 야드 바셈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나찌 학살의 기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기억을 단절시키지 않고,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교육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참고 수4:1-7)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자카르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자녀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실 때에, 항상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사람을 자카르(남자)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가장 책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